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반박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임자</b>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<b>담당자</b>	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655)	

**제 목 : 금융위원회는 FTSE로부터 공매도 금지지속시 선진국  
지수서 제외한다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  
[조선비즈 2.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

**1. 기사내용**

- 조선비즈는 2월 4일 「금융위, FTSE 경고장 받았다...“공매도 금지 지속하면 선진국 지수서 제외”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글로벌 주가지수회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이스체인지(FTSE) 그룹이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국을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**

- 금융위원회는 FTSE로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지할 경우 한국을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일체의 서한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prfsc@korea.kr	 <small>합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